

# 관용어의 친숙도, 성별, 학업성취도가 관용어 이해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 of Familiarity for Idiom, Gender Difference, Academic Achievement on the Abilities of Idiom Comprehension

이진숙\*, 박소영\*\*

백석문화대학\*, 국립특수교육원\*\*

Jin-Sook Lee(jin-sook-lee@hanmail.net)\*, So-Young Park(atomsimsuli@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관용어의 친숙도, 성별, 학업성취도가 관용어 이해하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용어 친숙도를 조사하여 50개의 관용어를 친숙한 관용어와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예비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과제를 실시하고,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첫째, 관용어의 친숙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하기에는 차이가 있어 친숙한 관용어를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에 비해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하기에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하기에는 차이가 있어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관용어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용어 특성 이해, 관용어 교육 및 외국인 우리말 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중심어 : | 관용어 | 관용어 친숙도 | 성별 | 학업성취도 |

###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idioms comprehension ability according to the familiarity of idiom, gender and academic achievements. 50 idioms were divided familiar and unfamiliar by the survey. The subjects was 18 years old, 63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assessed with the task. The task is about the idiom comprehension with 25 familiar idioms and 25 unfamiliar. And there investigated about the academic achievements on participants.

The result were as follows: Fri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dioms comprehension ability according to the familiarity of idiom. Second, there was on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dioms comprehension ability according to gender. Thir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dioms comprehension ability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s. The result of present study will be important data for Korean idiom education of foreigner.

■ keyword : | Idiom Comprehension | Gender | the Familiarity of Idiom | Academic Achievement |

## I. 서론

학령기 이후에는 비유적 언어(figurative language)가

발달하는데, 이는 언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비유적 언어는 단어를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상적이거나 정

서적인 인상을 만들어 낸다[1]. 대화, 교실 수업, 읽기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비유적인 언어의 일차적인 유형에는 관용어(idiom), 은유, 직유, 그리고 속담이 포함된다[2]. 관용어는 관용구, 관용표현, 속어, 익은 말, 익힘 말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하며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다. 그러나 관용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의 결합이 아니라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이상의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즉 비유적 언어 중 관용어와 속담은 문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고, 그 의미는 맥락에서 추론된다. [3]에서는 관용어를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어구나 한 문장이 그것을 이룬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와 관계없이 전체로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널리 쓰인 말’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4]에서는 형태론적 관용어와 의미론적 관용어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형태론적 관용어는 ‘문법적으로 정상적인 논리 표현과 다른 비문법적 비논리적 관용 표현’, 의미론적 관용어는 ‘문법적으로 구조는 정상적이지만, 그 각각의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결합해서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관용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의 사회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표현이어서 어휘의 일차적 측면만 안다고 해서 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제와 대화 상대 또는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관용어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는 관용어와 속담의 차이점, 관용어의 특성, 관용어의 사용양상 등 관용어의 국어학적인 측면이 주로 연구[5][6][7] 되었으며, 관용어 이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기존의 연구는 관용어의 언어학, 어휘적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언어는 생성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 관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어떤 관용어를 더 친숙하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어떤 관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유어이며 비유언어인 관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관용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용어 이해와 관련된 요소들에 무엇이 있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관용어를 위한 교수계획과 교수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용어 이해에 관련된 요인인 친숙도, 성별, 학업성취도 등이 관용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관용어의 친숙도, 성별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관용어 이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과 관용어 이해와 관계를 밝힌다면 관용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관용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 되어서[5],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용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용어는 모국어 학습자들 간에는 오랜 시간을 통해 저절로 습득되는데 반해 외국인에게는 학습되어야 한다. 이때 관용어의 특성을 정확히 밝힌다면 관용어 학습 순서를 결정하고, 난이도를 조절하며 의미상의 변화 등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 자료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달기 이후의 시기에 언어장애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검사도구가 많지 않은데[8], 관용어 이해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언어치료 현장에 성인 언어장애의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연구문제

1. 관용어의 친숙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하기에 차이가 있는가?
2. 성별에 따라서 관용어의 이해하기에 차이가 있는가?
3.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관용어의 이해하기에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관용어의 특성

관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학자마다 통일 되어 있

지 않아서 어떤 사전에서는 관용어로 명시된 것이 다른 사전에서는 개별 단어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 속담으로 처리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관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목록들을 국어사전에서는 관용어로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관용어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5]. 따라서 관용어와 속담, 둘의 차이점을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선행 연구[9]에 의하면 관용어의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단일어 이상을 관용어로 보는 경우, 구나 절 이상을 관용어로 보는 경우 등이 있다. 관용어도 표면구조상으로 볼 때는 구절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속담보다 대체로 길이가 짧다는 사실 외에는 구별이 힘들다. 그러나 관용어와 속담은 운율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바, 관용어는 운율을 지니지 않지만 속담은 어느 정도 운율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7].

둘째, 속담과 관용어의 의미 실현 양상에서 차이점이 있다. 속담은 발화에서 독립적이며 전후 발화와 관련을 맺는다. 속담은 교훈이나 풍자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축자적 의미로 실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용어는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교훈성이나 풍자성이 없다.

셋째, 관용어는 관용적 의미를 실현하는 하나의 어휘소로 기능을 한다. 속담은 발화에서 생략을 해도 의미 전달에는 별 변화가 없으나 관용어는 생략되면 의미 전달이 어렵다. 즉 문장에서 속담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중복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관용어는 구성요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경우 의미가 상실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용어는 비유 언어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속담과는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용어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관용어와 관련 요소

관용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관용어의 국어학적인 특성에 관한 것이고 관용어 이해에 관련된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관용어가 비유 언어에 속하고 속담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속담이나 관용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관용어의 이해와

관련된 변인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용어 및 속담을 포함한 비유적 언어에 관한 선행연구[10-14]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친숙도, 성별 등이 비유 언어의 이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에서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짧은 문맥이 제시된 사지택일형 필기 검사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속담이해능력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들은 친숙한 속담을 낯선 속담보다 더 쉽게 이해하였다. [14] 연구에서는 친숙한 관용어와 새로운 관용어를 짧은 이야기에 넣어 읽도록 했을 때, 친숙한 관용어를 더 빨리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관용어는 서술적 표현보다도 더 느리게 이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속담이해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친숙한 속담에 대해서 높은 이해능력 점수를 보임으로서 속담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속담의 친숙도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냈다. 또한 [12]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친숙도에 따라서 속담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은 친숙한 속담을 친숙하지 않은 속담에 보다 더 쉽게 이해하였으나 청소년과 성인은 속담의 친숙도에 따라 속담이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유 언어 및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하나는 성별이다. [15]의 연구에 의하면 여아의 언어능력은 읽기 이해와 지각속도, 보조기억, 그리고 쓰기의 영역에서 모두 남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 남아와 여아 간의 성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16]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17]에서 초등학생의 간접적 표현의 이해에 관한 연구에서 속담을 이해하는 능력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전체 남학생의 속담 평균은 2.4점 전체 여학생 평균은 3.0점으로 여학생이 0.6점 높다는 보고를 하였다. [11]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속담이해능력을 조사하였는데 성별에 따라서 속담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10]에서

는 7-12세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속담 이해능력을 검사하였다. 그 결과 11-12세의 경우에만 여아가 남아보다 속담이해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연령 7, 8, 9, 10세의 아동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언어능력에서의 성차가 약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18]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 연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어 이해에 성별이 관련이 있는지는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용어의 이해능력과 학업성취 능력을 직접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관용어는 글자 그대로의 해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추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론능력이 요구되는 과제에서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학습성취 능력과 관용어 이해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19]에서는 과거 단순언어장애의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과 정상아동의 은유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과거 단순 언어장애의 경험을 가진 아동이 정상아동보다 은유와 조합유추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였고 은유적 의미보다는 사전적 의미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에서는 9-11세의 정상 아동, 과거에 언어장애였던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은유 이해능력을 살펴보았는데 과거에 언어장애가 있었던 아동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은유적 의미보다 사전적 의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21]에서는 언어발달 지체 아동은 또래 정상아동과는 달리 은유나 비유처럼 직접적이지 않거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22]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예측 추론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에서는 20-30대의 농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화사용 청각장애인이나 수화사용 청각장애인 모두 일반인에 비해 관용어 이해에서 낮은 성취수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언어능력 또는 학업능력의 문제가 비유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관계가 있는 변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인 장

애아동과 일반아동은 학업성취도에 격차가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격차가 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비유언어 이해에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따라 관용어 이해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관용어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관용어의 친숙도, 성별, 그리고 학업성취도를 예상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관용어와 변인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관용어 이해와 관련된 변인의 관계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관용어 교육에 관련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으로 충청남도 소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표집 하였다. 처음 관용어 이해검사를 수락한 학부의 학생은 90명 이었다. 이 중에서 제공된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지를 되돌려 주지 않은 학생 그리고 당일 결석한 학생 등 12명이 제외되었다. 또한 검사지 채점과정에서 연속해서 5문항을 무응답하거나 5문항을 비연속적으로 빈칸으로 남겨서 답하지 않은 결과지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정확히 이유를 밝힌 검사지에 비해 빈칸으로 남긴 이유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통계적인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최종적으로 남자14명 여자 49명 총63명의 검사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최종 참가자 전체 평균 연령은 18.91(표준편차=1.54),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19.25(표준편차=1.81), 여학생평균연령은 18.82(표준편차=1.45) 이었다. 성별에 따라 두 집단 간 연령에 차이가 없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t=.938, p=.352$ )로 성별에 따라 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관용어 점

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용어 이해 과제를 검사 한 학부의 모든 교과 강사에게 학업 성적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한 교과의 성적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과명, 교과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 평가 내용 및 성적산출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를 원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학업성취도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를 합하여 산출된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점수이었다. 또한 처음 관용어 이해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학기 중에 자퇴, 휴학, 유학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학생 10명을 제외한 인원수는 53명이다.

##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용어는 선행연구인 [5]에서 제시한 관용어 목록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5]에서 사용된 자료는 [23]에서 제시한 [24]를 기초로 선별 한 자료이었다. 이 두 자료에서 제시된 관용어들 중에서 우선 속담과의 경계가 모호한 것들은 제외하고 중복되거나 의미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용어들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127개로 줄였다. 이들 중 다시 [25]의 관용어 사용 빈도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60개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5]에서 선정된 60개의 관용어 목록을 언어치료재활을 전공하는 2학년 대학생 10(남학생2명, 여학생8명)명에게 주고 그 의미를 기술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연구자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급 언어치료사가 채점하였다. 채점 결과 학생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기술 한 관용어, 최고 많은 점수를 받은 관용어 및 최저 점수를 받은 관용어 등 10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50문항을 선정하였다.

## 3. 관용어 친숙도 검사

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선정된 50개의 관용어로 대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남자 4명, 여자 15명을 대상으로 관용어의 친숙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관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후 최종 선정된 50개의 관용어가 적힌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관용어의 친숙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표시 해 줄 것을 설명하였다. 즉 친숙도를 5점 척도(1=전혀 들어본 적 없다.; 2= 가끔 들어 본 적 있

다.; 3= 자주 들어보았다.; 4=자주 들어서 아주 익숙하다.; 5= 아주 많이 들어보았고. 생활에서 자주 사용한다.)로 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친숙도를 5점 척도를 통한 조사의 근거는 [1]과 [10] 이었다. 50개의 관용어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친숙도 평균의 범위는 2.1-4.7, 평균은 3.32(표준편차= 0.42)이었다. 친숙도 평가에서 평균 3.35점 이하의 관용어는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로 분류하고, 평균 3.35이상의 관용어는 친숙한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친숙도 3.35이하의 관용어는 25개는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로, 친숙도 3.35이상의 관용어는 25개는 친숙한 관용어로 나누었다.

선정된 관용어 채점의 객관성을 위해 [3][4] 및 [26]을 참고하여 각 관용어에 적절한 해석을 모두 확인 정리하여 채점의 기준을 준비하였다. 관용어 채점 기준에 적절히 맞는 답은 2점, 사전적 의미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답한 경우는 1점 처리하였다. 답지에서 철자법이 틀린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았다. 무응답 하여 빈칸인 경우, '모르겠다.'라고 답 한 경우 그리고 설명적 의미로 답한 경우는 모두 오답으로 0점 처리하였다. 점수의 기준은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관용어 이해 검사의 채점 기준

	기준	예
2점	사전적 의미를 포함한 표현	'눈이 높다'의 경우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 안목이 높다. 또는 사물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다.
1점	사전적 의미가 부분적으로 포함되거나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	'눈이 높다'의 경우 '외모가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로 답하거나 '연예인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로 답하는 경우
0점	관용어의 의미나 뜻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눈이 높다'의 경우 '잘 생긴 미남만 눈에 보인다.' '가치관이 높다.' 또는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까다롭다' 등으로 답한 경우

## 4. 예비 검사

예비 검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남자) 2명과 2학년 학생(여자)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자가 학생에게 관용어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관용어 검사를 하는 이유는 '관용어를 학생들이 얼마나 알

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문제를 시행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실제 실험 상황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관용어 검사지에는 예로 관용어를 뜻/의미를 보기로 주어 뜻과 의미를 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관용어 검사지에 사용한 보기는 [표 2]와 같다.

표 2. 관용어 검사지에서 사용한 보기

보기	뜻/의미
헛 바퀴 돌 듯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다.

### 5. 절차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 학생들에게 관용어 검사 실시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였다. 검사 실시 이유는 예비검사 때와 동일하게 설명하였다. 그 다음 학생이 학년, 이름, 성별, 생년월일, 검사 날짜를 검사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학생에게 '관용어를 보기와 같이 설명이나 의미(뜻)를 되도록 자세히 적어주세요.'라는 지문과 보기내용을 읽어주고 검사를 시작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작성한 문제지는 연구자가 모두 1차와 2차에 걸쳐 채점하였다. 관용어 이해 과제 수행 점수는 총 50문항으로 각각 최고 점수 2점을 받을 수 있어서 최고의 총점은 100점이 된다.

### 6. 신뢰도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제 1 평가자는 연구자였고, 제2 평가자는 10년 이상의 언어치료 경험이 있는 1급 언어치료사 이었다. 제2평가자는 전체 자료의 약 30%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일치된 평가 수치를 일치된 평가 수치와 불일치된 평가 수치를 합한 수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점수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는 98%로 나타났다.

### 7. 자료의 통계처리

실험이 모두 끝 난 다음 본 검사지를 채점(정답:2점 또는 1점, 오답:0점)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관용어 친숙도와 관용어 이해하기 능력

관용어의 친숙도에 따라서 관용어 정의하기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친숙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총점수의 기술통계 결과

	N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숙한 관용어	25	26	119	88.72	19.03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	25	10	104	69.96	24.13
합계	50				

[표 3]에 의하면 친숙한 관용어의 이해가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의 이해 점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어 이해점수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친숙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점수의 차이 검증

	평균	표준편차	t	p
친숙한 관용어	88.72	19.03	3.051	.004*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	69.96	24.13		

\*p<.05

[표 4]에 의하면 친숙한 관용어와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의 이해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친숙한 관용어를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에 비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별에 따른 관용어 이해의 차이

성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기술적인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성별에 따른 관용어 이해 점수의 기술통계

	N(인원 수)	평균	표준편차
남자	14	60	8.17
여자	49	63	12.55
합계	63		

[표 5]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관용어 이해 점수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관용어 이해 점수의 차이검증

	N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t	p
남자	14	60	8.17	-.793	.431
여자	49	63	12.55		

[표 6]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의 점수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관용어 이해 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업성취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하기의 차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하기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학업성취도의 기술통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학업성취도의 기술통계

학점	인원수	학업성취 평균	표준편차	최소 점수	최대점 수
A	17	93.41	2.64	90	99
B	21	83.24	3.36	80	89
C	11	74.27	3.43	70	79
D	4	61.50	1.29	60	63
합계	53				

[표 7]와 같이 관용어 이해검사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서 자퇴, 휴학, 유학, 연수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미응시로 인하여 제외된 학생들 이외에 학업성취도 평가

에 참여한 인원수는 53명이다. 학업 성취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점수의 기술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표 8]과 같다.

표 8. 학업성취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과제 점수의 기술통계

학업 성취도 (학점)	N (인원수)	관용어 이해 과제 점수 평균	표준편 차	최소 점수	최대 점수
A	17	68.82	8.30	50	85
B	21	61.38	11.11	34	82
C	11	61.73	11.23	34	74
D	4	51.75	2.87	48	54
합계	53				

[표 8]에 의하면 학업성취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점수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관용어 이해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일변량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학업성취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과제에 대한 변량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154.966	3	384.989	3.883	.014*
집단내	4858.355	49	99.150		
합계	217127.00	53			

\*p<.05

[표 9]에 의하면 학업성취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과제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의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단 간에 나타난 관용어 이해 점수 차이가 어떠한 집단 간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Tur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업성취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점수에 대한 집단별 Tukey 사후검증 결과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A집단				*
B집단				
C집단				
D집단	*			

\*p<.05

[표 10]의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학업성취도 A집단과 D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관용어 이해를 의미 있게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의 친숙도와 성별에 따라서 관용어의 이해하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학업성취도와 관용어 이해과제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하기 과제를 실시하고,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어 이해과제에서 관용어의 친숙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점수는 차이가 있었다. 즉 친숙한 관용어가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에 비해 더 학생들에게 더 잘 이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14] 및 [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아동기 이외에 청소년과 성인에 있어서는 친숙도에 따라서 비유 언어인 속담 이해에 차이가 없다고 한 [12]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관용어가 비유 언어이기 는 하지만 속담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속담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던 관용어의 정확한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용어에 관한 연구들이 폭 넓게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 관용어의 이해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11][15-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 않다. 반면 연구대상 중에 11-12세 이외에는 성별에 차이가 없다고 한 [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언어능력에 있어서 성차가 약해지고 있다는 [18]의 연구와는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성별에 의한 언어능력의 차이는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어능력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 연구도 아니며, 여러 연령대를 연

구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 점이 있다. 따라서 관용어의 이해에 성별에 차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관용어의 이해하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에 따라서 관용어 이해점수 평균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사후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에서 관용어 이해점수가 의미 있게 차이가 있다고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비유 언어 능력을 연구한 [19]의 연구 결과, 과거 학습장애였던 아동과 일반아동의 은유이해 능력을 연구 한 [20]의 연구결과 및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일반아동의 함축적인 문장 이해를 연구한 [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를 연구한 [9]의 연구결과에서 일반인에 비해 청각장애인의 관용어 이해 성취도가 낮았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 검사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과제를 검사한 결과가 아니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자의 요청으로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이 비공개되었다. 그리고 학업성취 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 예를 들어 휴학, 자퇴, 결시 및 연수 등의 이유로 성취도 평가에 1회 이상 결시한 학생들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휴학, 자퇴, 결시 등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제외됨으로써 학업성취에 어느 정도 열의가 있는 학생들의 참여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적으나마 본 연구 결과 학업성취도와 관용어 이해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학업성취가 관용어 이해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겠으며, 학업성취도 검사를 연구자가 직접 제작 실시하는 것이 학업성취와 관용어 이해의 정확한 관계 여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용어 이해과제에서 응답 내용과 오류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인 대학생의 관용어를 이해능력을 파악하고,



앞으로 관용어 연구를 할 때 비교자료가 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의 없는 응답, 즉 연속해서 5문항 이상을 무응답한 검사지를 제외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결과지가 제외되었다. 이러한 무응답의 이유들로 대상 학생들이 과제를 이해하고 글로 그 이해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음, 자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함해도 불구하고 어렵거나 귀찮은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짐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문법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 철자의 오류 등이 상당수 나타났다. 본 연구에는 의미적인 표현이 적절하면 문법적 오류나 철자 오류는 감점하지 않았다. 문법에 어긋나거나 철자 상에 오류의 원인으로는 학생들이 거의 모든 과제를 기계에 의존하여 사용한 결과인 듯하다.

의미적인 오류에서 가장 흔한 예로는 관용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 표현이었다. 예를 들면, ‘손이 크다.’라는 것은 ‘쌈씨가 후하고 크다.’ 또는 ‘수단이 좋고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손의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한 경우 이다. 학생들의 또 다른 언어표현의 특징은 은어이다. 예를 들면, ‘한 톱 내다.’의 의미는 ‘크게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다.’, ‘한바탕 남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또는 ‘좋은 일이 생긴 데에 대해 기분을 내느라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다.’ 인데 ‘쏘다.’로 응답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외의 특징으로는 관용어를 너무 과대 해석하여 이해하는 경우와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라는 관용어는 ‘남이 잘 돼서 심술이 난다.’ 또는 ‘남이 잘 되는 것이 밋고 심술이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남이 잘 될 때’라고만 응답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또한 ‘눈이 높다.’라는 관용어는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 또는 ‘안목이 높다.’라는 의미가 있으나 ‘이성을 보는 눈이 까다롭다.’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허리띠를 졸라매다.’의 관용어는 ‘검소한 생활로 새로운 결의와 단단한 각오로 일을 시작함’ 등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는데 응답에는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아끼다.’ 등 물질적인 의미만을 응답하고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결의나 단단한 각오 등에 해당되는 정신적 의미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들

은 사회적 의식과 경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생성적 체계이다[2]. 이러한 이유로 관용어의 의미도 오류분석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경향과 의식을 반영하여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관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교육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용어와 같은 비유 언어들의 쓰임새 변화를 계속 연구하여 관용어 의미를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용어 의미를 창조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뿐 만 아니라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도 올바른 관용어 사용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관용어 이해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M. A. Nippold, "Evaluating and enhancing idiom comprehension in language-disordered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2, pp.100-106. 1991.
- [2] R. Owens,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pearson education. Allyn and Bacon. 2005.
- [3]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4] 동아문화연구소, *국어 국문학 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1981.
- [5] 김선정, 강현자, “한국어 관용어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이중언어학회 제32집*, pp.36-56, 2006.
- [6] 주경희, “속담과 관용어의 차이점” *국어국문학 130집*. pp.83-108, 2002.
- [7] 박세영, “관용어와 속담의 특성: 차이점을 중심으로” *강남어문 제10집*, pp.273-306, 2000.
- [8] 이진숙, “구문이해능력과 성별이 속담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 제36권, 제2호, pp.113-135, 2009.
- [9] 성소연, *청각장애인의 관용어 이해능력에 관한 연*

- 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7.
- [10] 김혜정,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속담 이해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2007.
- [11] 조복희, 이주연, “후기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 정도에 관한 연구: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28권, 5호, pp.19-36, 2007.
- [12] 오소정, *속담이해능력의 발달: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2001.
- [13] M. A. Nippold and F. S. Haq, “Proverb comprehension in youth: The role of concreteness and familiar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9, pp.166-176. 1996.
- [14] S. Kemper, “Inferential processing and the comprehension of idioms,”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Vol.1, No.1, pp.43-55, 1986.
- [15] L. V. Hedges and A. Nowell, “Sex differences in mental test scores, variability, and numbers of high scoring individuals.” *Science*, 269, 41-45. 1995.
- [16] J. S. Hyed and M. C. Linn, *The psychology of gender :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pp.1-13).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17] 정혜승, *초등학생의 간접적 표현의 이해에 관한 연구; 은유와 속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회 132 권 pp.89-119, 2002.
- [18] A. Feingold, “Cognitive gender differences are disappearing”, *American Psychologist*, 43, pp.95-103, 1988.
- [19] M. A. Nippold and S. H. Fey, “Metaphoric understanding in preadolescent having a history of language acquisition difficultie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d in School*, 14, pp.171-180, 1983.
- [20] R. F. Lee and A. G. Kamhi, “.Metaphoric competence in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anguage Disabilities*, 23, pp.476-482, 1990.
- [21] J. Higham, J. Wegmann, and J. Woods, “Visual and verbal metaphors among children with typical language and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2, pp.25-35, 1999.
- [22] 이진숙,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개인화된 예측추론 특성 및 추론촉진과제의 영향*,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 [23] *국제교육진흥원, 속담 100 관용어 100*, 국제교육진흥원, 2002.
- [24] *한국어세계화 재단, 한국어 교수법 개발 최종보고서*, 한국어세계화재단, 2002.
- [25] 문금현, *국어의 관용표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26] 동아출판사, *우리말 돌음사전*, 두산, 1995.

저 자 소 개

이진숙(Jin-Sook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학사)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석사)
- 2007년 2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교육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 보건재활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특수교육, 통합교육, 언어교육, 언어발달, 언어장애

박 소 영(So-Young Park)

정회원



- 1993년 2월 :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학사)
- 1997년 2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석사)
- 2007년 8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교육학 박사)
- 2009년 10월 ~ 현재 :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관심분야> : 특수교육, 통합교육, 협력 및 협력교수, 유아발달, 교수방법